

‘태권도, 세계인 문화유산으로’

태권도진흥재단, 글로벌 태권도 홍보 영상 제작... 아리랑TV 통해 세계 134개국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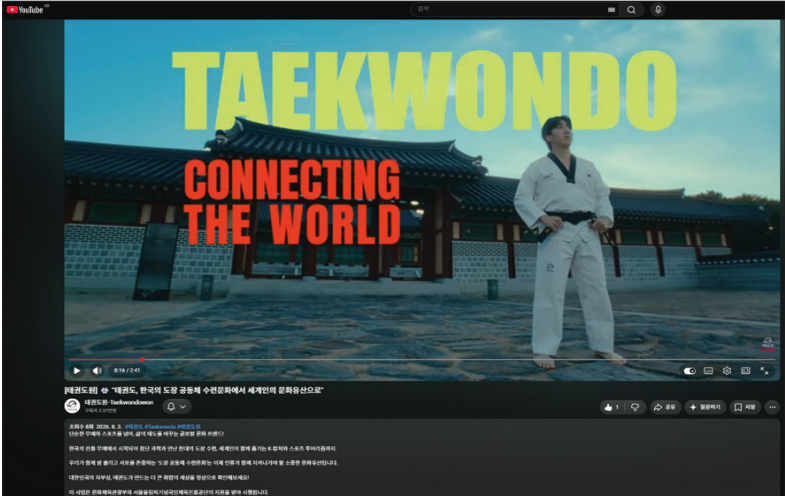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기 태권도의 가치 확산과 해외 홍보를 위해 ‘글로벌 태권도 홍보 영상’을 제작, 4일부터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34개국에 송출을 시작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이 제작한 홍보 영상은 2분 40초 분량으로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에서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를 주제로 제작했다. 태권도원과 태권도장 등에서 촬영한 홍보 영상에서는 태권도 철학과 예절, 공동체 문화, 스포츠 관광, 케이(K)-컬처 등을 담고 있다.

213만㎡(70만 평)에 달하는 태권도원의 자연 환경과 세계 각국 태권도인의 수련 모습 등을 담아 태권도가 무예와 스포츠 그리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유산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영상은 태권도 홍보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아리랑 TV World 채널과 Korea 채널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에서 1분, 2분 40초 등 다양한 분량으로 만날 수 있다. 태권도 홍보 영상은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담으며 마무리한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 홍보 영상은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태권도가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기 태권도의 가치 확산과 해외 홍보를 위해 ‘글로벌 태권도 홍보 영상’을 제작, 4일부터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34개국에 송출을 시작했다.

공동체 문화와 철학을 세계인에게 알린다”며 “태권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글로벌 태권도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통해 제작되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통 세시풍속 현대적 재해석 문화체험

남원 광한루원서 14~16일 칠월칠석 행사 개최

남원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전통 세시풍속인 칠월칠석을 주제로 한 ‘세시풍속 놀고-있다_칠월칠석’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한루원의 대표 문화자원인 오작교와 견우·직녀 설화를 활용해 전통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문화체험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 기간에는 사랑과 소망을 기원하는 사랑의 소원 나무와 합격의 소원 나무를 비롯해 사랑이 이어지는 오작교 건너기, 견우·직녀 별자리 관측 및 소원 빌기 등 칠월칠석의 의미를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달빛 버스킹, 견우·직녀 퍼레이드, 칠월칠석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 천문과학관, 전북과학문화거



점센터와 협력해 천체 망원경으로 견우성과 직녀성을 관측하고 전문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칠월칠석의 유래와 전통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제18회 전국매창회대회 입상작품 전시회 8~11일 개최

부안군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부안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제18회 전국매창회대회 입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 2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매창회대회 결실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고, 부안을 대표하는 여류시인 매창의 문학정신과 전통 서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매창의 시를 대상으로 한 한문, 한글, 문인화 분야의 입상작 총 41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경화 씨가 한문 분야 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 2점, 특선 10점, 장려상 20점, 입선 8점 등 전국 각지의 서예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기량이 담긴 우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대상 이경화 씨 작품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대 공감 공연

군산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통하는 SONG - 어쩌다 어른, 다시 청춘’ 9월 3일 개최

군산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조은혜)이 오는 9월 3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2회 기획연주회 ‘통하는 SONG - 어쩌다 어른, 다시 청춘’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음악으로 세대를 연결하고, 추억과 현재를 함께 공감하는 무대로 기획됐다. 익숙한 명곡과 감성적인 합창, 다양한 무대 연출을 통해 부모 세대에게는 따뜻한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조은혜 상임지휘자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지휘 아래 군산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국내 정상급 하모니카 연주자 진해린, 그리고 세션 밴드가 특별출연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완성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통하다’라는 주제를 다섯 개의 스토리로 구성하여 음악을 통해 세대와 감성을 이어간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5,000원이다. 티켓은 8월 6일 오전 10시부



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층 현장 매표소에서 카드 결제로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군산=김만호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이명택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이수자 전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지역 작가 이명택의 개인전 ‘사유(思惟)의 시간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무가 품어온 시간과 장인의 사유,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한 목가구를 통해 전통 소목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다.

전시는 4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소병진 선생에게 전수받은 전통 소목 기법과 정신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공개된다.

이명택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이수자는 “좋은 가구는 손보다 먼저 마음에서, 기술보다 먼저 깊은 사유에서 시작된다”며 “전통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일인 만큼, 관람객들이 작품에 스며든 시간의 결을 따라 장인의 사유를 마주하고 전통의 깊이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무주군, ‘안국사 천불전’ 전북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추진

무주군이 안국사 천불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국사 내에 위치한 천불전(옛 적상산사고 선원각)은 조선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비롯한 왕실 관련 전적을 보관하던 공간이었다. 1910년 적상산사고 폐지로 기능을 상실한 뒤 1937년 안국사로 옮겨져 불전으로 활용됐다. 무주군은 지난날 31일 전북자치도에 안국사

천불전의 전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천불전의 유형문화유산 지정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9월 지정 신청했지만 당시 문화재 현지조사와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부결됐다.

무주군은 지붕 해체 보수와 기록화 조사 등을 통해 건축물 변형과 이간에 따른 장소성 문제를 보완해 재신청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